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지원서비스 탐색

오 윤 자*(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배 지 영(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족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이 현 주(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족학전공 석사과정 4기)

전통적인 가족체제나 지역의 공동체성이 해체 또는 약화되면서 과거 거주지역 가까운 친인척과 이웃을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은 더욱 개별가족의 책임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족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나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약화된 가족의 돌봄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이 형성되는 중이다. 즉, 가족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가족기능 보완이나 회복을 위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지원서비스에 기초하여 가족지원의 체감을 향상시키며 가족공동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하므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조능력 역시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돌봄지원서비스 실태를 파악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가족돌봄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지원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 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항 등에 기초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다. 연구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본연구는 D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개한 가족돌봄서비스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프로그램 내용, 건수, 참여자수, 만족도 등에 대한 빈도 및 만족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실무자 업무회의를 통한 추진성과의 장점 및 보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D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서비스는 취학전후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품앗이양육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의 만5세이상 초등 3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행복한놀이터가 수행되었다. 가족돌봄서비스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품앗이의 경우, 학습위주의 품앗이, 육아위주의 품앗이, 가족친목위주의 품앗이, 놀이위주의 품앗이로 구분되며 전체 35개 프로그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계획 수립 및 월례회, 놀이 및 전통놀이 체험, 독서지도 및 토론, 자연관찰, 문화프로그램, 리더교육, 미술놀이 및 체험, 요리, 전시회 관람 등이 해당된다. 단위별 참여자수는 3명에서부터 39명까지이고 만족도는 5점 기준 4.1~4.5로 평균만족도는 4.3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한놀이터의 개요는 난타교육과 공연, 기본 돌봄 및 학습지도, 과제수행도우미, 자녀독서 및 발음교정 지도로서 크게 학습과 문화교육 지원으로 대별되어 있다. 전체 26개 프로그램으로 학습 13개, 문화교육 13개로 구성되었으며 단위별 참여자수는 10명에서 26명까지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5점 기준 3.9~4.7로 평균만족도는 4.26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품앗이양육의 경우 ① 장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참여자간 정보교류, 자녀의 사회성 향상, 가족건강성 증진 ② 보완점으로는 연령대별 프로그램 마련이 지적되었다. 행복한놀이터의 경우 ① 장점으로서는 가족친밀감 형성, 돌봄공백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선행 및 보충학습 기회제공, 잠재력 계발, 자신감 향상 ② 보완점으로는 학습과 휴식시간의 적당한 분배로 의욕 고취,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가족돌봄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주민참여, 가족-지역사회 연계 위한 코디네이터 배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